

오전(1부, 노랑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5년 2월 23일 (제1294 호)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봉 우 컬 럼

값보다 가치

값과 가치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는 대목은 마태복음 26장이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실 때 한 여자, 마리아가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러자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이 이를 보고 화를 내며 ‘왜 비싼 것을 그렇게 허비하냐?’고 난리를 쳤다.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면 얼마나 좋았겠냐는 것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여자는 좋은 일을 했다.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하셨다.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은 향유의 값만 보았다. 한 옥합의 가격은 거의 일 년 치의 품삷이니 값으로 따져도 엄청난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으니 바로 향유의 가치다. 주님은 곧 있을 당신의 죽음과 장례를 위한 기름부음에 가치를 두셨기에 마리아의 행적을 칭찬하신 것이다.

말 그대로 ‘값’은 물건이 가격이지만, ‘가치’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용(有用)이나 활용도를 말한다. 내가 우리 직원들에게 하는 말이 있다. “돈 보고 일하려면 다른 곳으로 가라.” 그들이 하는 일은 값 이상이다. 그들이 만드는 영상이나 신문, 책자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가 있다. 그 활용도를 어찌 말로 다하랴. 영상을 통해, 그리고 신문이나 책자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니 그것을 어찌 값으로 따질 수 있겠는가. 모든 것을 값으로 환산하는 실리는 신앙생활과 부딪친다. 가롯 유다는 실리를 추구했기에 예수를 은 삼십냥에 팔아넘긴 것 아닌가. 세상은 가롯 유다와 같다. 우리의 현금, 현신, 봉사를 아깝게 생각한다. ‘현금할 돈으로 주식을 사놓고, 저금하면 좋으련만, 교회 갈 시간에 취미생활을 하고 레저를 즐기면 좋으련만, 쫓쫓...’ 한다. 그건 그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고후6:8~10). 이것이 가치를 중시하는 참 크리스천의 삶이다.

중앙아메리카 코스타리카 3차 선교여행

우리는 지난 2015년, 목사님의 성역 30주년을 막 지나며 처음으로 코스타리카(Costa Rica)를 방문하여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다시 8개월 후, 2차로 알라후엘라(Alajuela) 및 산호세(San José)에서 복음을 전했다, 집회 후에 목사님은 대통령 궁을 방문하여 솔리스(Luis G. Solis Rivera) 당시 코스타리카 대통령과 면담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국가경영에 대해 조언하셨던 기억이 있다.

그렇게 2015년 코스타리카 집회를 끝으로 우리는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까지 한동안 스페인어권 지역을 방문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2023년 페루(Peru) 아마존(Amazon) 인근 도시 뿌갈

빠(Pucallpa)에서 집회를 가졌는데, 집회 첫날 우리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 멀리 코스타리카로부터 차로 11시간을 달려온 라파엘(Rafael) 목사였다. 그는 미국 시카고(Chicago)에 소재한 나훔(Nahum) 목사의 마라나타(Maranatha) 교단 소속 지교회 목사로 2015년 알라후엘라 집회 때 목사님을 처음 뵈고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 그 후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늘 기도하며 목사님을 닮고자 애써왔다는 것이다. 그런 열망이 있기에 무려 11시간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것 아니겠는가.

목사님이 주강사로 진행하셨던 2004년 시카고 목회자 세미나를 나훔 목사는 당시 교단의 모든 직분자들에게 영상으

로 보여주었는데, 그래서 라파엘 목사는 그때부터 목사님을 익히 잘 알고 있었고, 2015년 코스타리카 집회에 오셨을 때 큰 은혜를 받고, 그때 이후로 목사님 유튜브 영상을 반복해서 보며 사모해왔단다. 12년간 목회하면서 40명 성도였던 교회가 그 집회 이후 성장을 거듭하여 300명 성도로 성장했다고 한다. 그는 직접 헌물을 들고 찾아와 정말 간절한 눈빛으로 목사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경청했다.

당시 목사님은 ‘연합전선을 구축하라’는 메시지로 독불장군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그 지역의 현지 목회자들과 손을 잡고 연합하여 집회를 준비하라고 조언해주셨다.

라파엘 목사는 목사님의 말씀을 모두 녹음하고, 때론 눈물을 흘리며 목사님 품에 안기곤 했다. 목사님을 만나 말씀을 들으니 뭔가 뻥 뚫리는 느낌이라며 기뻐했다. 목사님의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는 눈빛과 목사님을 정말 사모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 깊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베네수엘라(Venezuela) 카라카스(Caracas) 집회에 그는 다시 목사님을 찾아왔다. 집회 일정을 확정받으려는 것이었다. 경험적으로 집회를 준비하는 자가 직접 목사님을 찾아와 뜨거운 열의를 보이는 경우, 그 집회는 반드시 대역사가 일어난다. 이는 경험이고 통계다. 목사님 말씀처럼 열정은 성공



2015년 코스타리카 집회 광경

“목회는 사람을 다루는 거다. 하나님은 보내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는 생각으로 각자 달란트에 따라 일을 맡기고, 그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어머니처럼 품어주고 용서해라. 맞지 않는다고 내치니 교회가, 목회가 망하는 거다. 목회는 결코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연합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오늘 이 한 말씀만 듣고 가도 너는 성공한다. 네가 집회를 준비한다면 목사들을 모아서 중책을 맡기고 너는 괜히 머리 되려 하지 말고, 발 역할을 하면 되는 거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무엇이 되는 건 중요하지 않다. 성공을 위해서는 적과도 동침하는 거다. 다시 말한다. 연합전선을 구축하라.”

과 정비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만히 앉아서 목사님이 오시면 다 되겠다 하는 자세는 백전백패로 나타났다. 이 역시 통계이고 경험이다.

목사님은 이번 코스타리카 집회를 언급하실 때마다 전대미문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선포하시곤 했다. 또한 이번 노랑진 기도회를 통하여 많은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했고, 무엇보다 집회를 배설한 라파엘 목사의 뜨거운 열정이 있기에 반드시 성령의 대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전대미문의 집회가 되리라 확신한다. 마치고 돌아가는 순간까지 성도 여러분의 뜨거운 합심기도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은택 목사

이초석 목사 코스타리카 집회

2025년 2월 18일(화)~27일(목) 집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요10:7~15)

유비무환(有備無患)이 제일이다

80년대 저는 이층집을 신축하면서 당시에는 최첨단인 도난방지기를 설치했었습니다. 누군가 밤에 담을 넘으면 뱅~~~하고 사이렌 소리 같은 경보음이 울려서 도둑을 퇴치하는 장비였습니다. 요즘에는 보안장비가 더욱 발전하여 CCTV와 일반가정을 위한 시스템경비 서비스가 있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최첨단 보안장치만 설치하면 절대로 도적 안 맞습니까? 도둑 안 들킵니까? 아닙니다. 이런 장치를 갖추고도 도둑이 들어 다 털린 경우를 종종 봅니다. 보안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제대로 작동하겠거니' 하고 점검하지 않다가 큰 코를 다친 격입니다. 영의 세계에도 도둑이 있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바다의 모래알처럼 아주 많습니다. 귀신들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것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틈만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최첨단 보안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최첨단 영적 보안시스템은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첨단 보안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으로 안전이 온전하게 보장된다고 믿는 것과 같이 성령을 한 번 받았으니 '이제는 안전해' 하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최첨단 보안시스템도 잘 작동되나 수시로 점검해야 보안에 문제가 없듯 늘 성령이 충만한지, 아니면 성령이 소멸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물러간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을 소멸치 말며'(살전5:1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떠나가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소멸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최첨단 영적 보안시스템이 아예 철거되는 것이 아니라 작동 능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도적들이 얼씨구나 하고 들어오겠지요. 그래서 점검이 필수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않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살전5:17)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4절에 보면 도적이 제가 나온 집으로 다시 들어와 제집처럼 친구까지 불러들여 주인 행세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도적은 분명히 이 집에서 쫓겨난 전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당히 들어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전에 쫓겨났을 때는 분명히 보안시스템이 작동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안시스템

을 점검하지 않고 방심하다 보니 작동되지 않자 귀신이 다시 들어온 겁니다. 주인을 묶어놔오니 친구인들 못 부르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벧전5:8~9) 했고, 대적하는 방법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벧전4:7)고 한 것입니다. 기도하여 성령을 받으면 방어를 위한 보안시스템만 설치하는 것이 아



총회장 이초석 목사

니라 공격용 무기도 지 급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행1:8). 그 권능이 뭐냐 하면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막16:17~18)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신 후에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지 않았습니까? 그 권능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한지라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고, 일을 마친 후에도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기도 점검하지 않으면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고, 무용지물이 됩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점호 전에 언제나 총이 윤이 나도록 닦고, 총구를 쭈시고 쭈셔서 잘 닦았던 것은 언제든 총알이 잘 나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곧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망해갑니까? 사업이 잘 안 됩니까? 건강이 안 좋습니까? 힘든 일이 많습니까? 도적이 들어와서 그런 겁니다. 성경에도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요10:10). 보안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귀신이 이미 들어온 겁니다. 성령충만이 떨어져 귀신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무기를 써서 내어쫓아야 합니다. 성령을 힘입어 예수 이름으로 내어쫓으면 됩니다. 예수 이름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망하게 하라 귀신아, 가라! 가라! 가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을 일으킨 귀신아, 가라! 가라! 가라!" 하십시오. 총구가 막히지 않았다면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이 나가 짐승을 쫓고 죽이듯, 성령이 충만하다면 예수 이름이 귀신을 내쫓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어릴 때부터 병어리 귀신이 들린 아이를 아버가 데려왔으나 제자들이 이를 내쫓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아버와 그 아들이 가고 제자들이 민망하여 예수님께 여쭙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을까요?" 그러자 예수님이 단도직입으로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막9:29). 기도하지 않는 것은 보안시스템이 망가진 것이요, 무기가 녹슨 것입니다. 그러니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점검하려면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집 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눅12:39~40) 했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마24:42~43) 했습니다.

경계를 늦추면 안 됩니다. 안일하다 편안하다 할 때 도적이 들거든요. 영적 나태함에서 나와야 합니다. 편안함이란 블랙홀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옛말에 '바늘구멍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바늘구멍만큼의 틈만 보여도 들어오는 것이 귀신입니다. 그러니 경계가 얼마나 철두철미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경계의 말씀이요, 훈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주의 종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경고의 나팔을 불어주십니다. 그런데 안 들킵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숫군을 세웠으니 나팔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렐6:17~18). '늘 기도하여 성령충만하라', '무기가 있어야 전쟁에 이길 수 있다'... 파숫군인 주의 종들이 매일 나팔을 불어대나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들이 당할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신이 들어와 아프고, 다치고, 망하고, 괴롭고 힘들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땅에, 우리 심령이 어두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왕노릇하고, 귀신들이 판을 쳤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요10:8).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것이 이론이든, 교권이든, 사상이든 그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신앙을 저버리고 나태하게 하는 마귀의 체계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쫓아내야 합니다. 성령의 검을 들고, 총을 들고 쫓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검은 무더서 무도 못 자를 정도라 소용없고, 그 총은 총알이 없는 빈총에 불과하여 귀신들의 조롱만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요?

무기가 좋으면 전쟁에 승리한다

여러분, 유비무환(有備無患)이 제일입니다. 마귀와 그의 졸개인 귀신은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달라붙으려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자리 잡고, 흥흥한 체계를 꾀하려고 할 것이니 늘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십시오. 그러면 육체와 가정, 사업, 교회와 사회, 국가가 평안할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28:19~20). 할렐루야!

:: 객원컬럼 ::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어느 성도가 어떤 일을 용서하지 못해 몸을 부르르 떤다.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린다고 한다.

“용서하세요.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시니까요.”

“목사님 같으면 용서하시겠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도 용서 못하겠네. 그런데 주님께 가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 해 봐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나는 나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단다’ 하실 거예요.”

그 성도님과 대화 내용이다.

용서가 참 어려운 덕목인가 보다. 한 번은 젊은 청년이 와서 상담하는데, “목사님, 나에게 잘못해놓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도 용서해야 하나요?” 하고 묻는다. 나의 대답이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를 하나. 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 용서하지. 누가복음 17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일곱번이라도 네게 죄를 얻고 일곱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말하고는 “그런데 조금 다른 차원이지만, 또 다른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5장 43~44절에,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

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단다. 원수도 사랑하라 하시는데, 어찌 용서를 못하겠니? 할 수만 있으면 네가 살기 위해 잘 못했다 하지 않더라도 용서해버려라. 그가 와서 용서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가 오지 않으면 그 마음을 갖고 천국까지 가서 주님 앞에 서야 할 테니 말이다. 주기도문의 핵심은 용서란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13절에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주시고, 연이어 6장 14~15절에 마치 주기도문에 주석을 다신 것처럼,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권면했단다.” 그래도 짚짚해 하길래, “그러면 스테반처럼 예수님이 하신 대로 따라 해 보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단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눅23:34). 스테반도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행7:60) 했지.”

우리도 도저히 마음속에 진실로 용서되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처럼, 스테반처럼, ‘주여, 저가 알지 못하니 용서하옵소서.’ 하고, 내 마음속에 상처를 잊어버리자.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죄책감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찾아 누리자. 할렐루야!

이시대 목사

:: 영생에 이르는 길 ::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라!

몇 달 전, 저녁기도모임을 앞두고 기도처의 창문에 비닐을 씌우고 전열기를 구비하는 등 월동 준비를 위해 장로님이 일을 벌였습니다. 저는 교구 일이라 마땅히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옆에서 보조하며 도와드렸습니다. 그 시간 기도처 성전에서는 성도들이 부르짖어 통성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하다 보니 어느새 기도모임 끝날 시간이 되었고, 그때서야 부랴부랴 성전에 들어가 성도들 앞에 서서 기도회를 마무리했습니다. 기도는 전혀 안 하고 일만 하다가 마침 시간이 되어서야 나타나 마무리 기도를 하는 제 모습이 하나님과 성도들 보기에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다음날 수요일예배에 총회장 목사님이 단에서, “기도모임은 기도를 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목사나 전도사는 성도들의 기도를 앞에서 끌어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성도님이 통화 중에, ‘왜 기도를 이끌어야 할 전도사님은 기도는 안 하고 일하고 계셨냐. 기도 시간에는 전도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끌어줘야 하지 않겠냐.’고 따끔한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성도의 입술을 통하여 다시금 깨닫게 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시대 목사님은 주의 종들에게 늘 강조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기도의 자리, 기도 시간을 사수하고 최선을 다하라’고. 하나님의 일이라며 기도를 게을리하고 스스로를 합리화시켰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여 항상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행6:4). **최성경 전도사**



:: 교단소식 ::

성공하려면 편안하기를 거부하라!



총회장 목사님은 ‘2025년,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자’라는 슬로건을 전 교단에 선포하시고, 매주 토요일마다 중고등부 및 대학청년부 예배에서 하나님의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비법들을 강력하게 전하고 계신다. 방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직접적이고 깊은 소통을 하는 방법에서부터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까지 인생 곳곳에 직결되는 샘물 같은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다.

지난 토요일, 목사님은 ‘우리 인생은 우리 생각과 우리 언어로 만드는 작품’이라는 주제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셨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앞으로 100세를 넘어 120세까지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 인생을 성공적으로 준비하려면 편안하기를 거부하고 열심을 다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사활을 걸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편안하고 안 일한 블랙홀 속에 빠져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쉬자는 마음가짐으로는 우리 삶이 절대로 윤택해질 수 없습니다. 편안함이란 블랙홀에서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젊을 때 기백과 패기를 가지고 내 것을 찾아야 합니다. 남이 잘 때 동일하게 자고, 남이 놀 때 동일하게 놀면서 어떻게

남보다 나은 삶을 바라겠습니까? 남이 잘 때 깨어 일하고, 남이 놀 때 정신 차려 연구하고, 남이 즐길 때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새벽을 깨우며 새벽 미명부터 기도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밥을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쁘게 살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편안하기를 거부해야만 우리 삶이 더욱 행복하고 윤택하게 빛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누구와 어떻게 일할 건지 고민해야 합니다. 미련한 자(잠26:6),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아야 하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면 안 됩니다. 사람과 연장은 골라 써야 합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어느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나설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이 되고,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론’ 속에 받을 축복을 누려야 하는 존재임을 알고, 젊어서 노세가 아닌 젊어서부터 열심히 일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목사님은 “내 삶은 ‘대충’이라는 균(菌)을

잡아내며 아무도 몰라줘도 꾸준히 앞만 보고 걸어온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를 위해 준비한 것들을 부지런히 찾아 누리며 내가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나이에도 열심을 다해 일하고, 연구하며 부지런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일할 땀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십시오. 성공한 사람은 부지런함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며 우리의 영성과 능력을 재찍질하셨다.

올해 우리는 삶 속에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기로 작정했는데, 이는 우리가 내 능력의 임계점과 기도의 임계점을 뛰어넘는 과정에 받을 축복임을 믿으며 나아가야 한다. 자리에 가만히 앉아 이루어지는 일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공짜는 쥐뿔에나 있는 것이다. 나 스스로 땀 흘리며 노력해야 소중한 성과가 주어지는 것이다.

자신의 언어와 외모를 관리하고, 자기에 맞는 자기 분야의 일을 찾아 발견하여 싹을 틔우고, 불철주야(不撤晝夜) 열심을 다해 일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축복, 기적을 받아 누리는 능력의 자녀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김경현 성도

행복한 가정



저는 결혼 9년 차인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기타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신문에 기고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과 기회를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케 하라 하셨습니다(창1:28). 이 땅에 충만케 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까요? 감히 제가 깨달은 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2023년도 하반기쯤부터 다니던 회사의 재정문제로 갑작스럽게 급여가 70%, 50% 불규칙하게 나오면서 대비하지 못했던 저희는 생활비에 마이너스가 생기게 되면서 점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해 아등바등해보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헤쳐 나아갈 방법도 생각나지 않아 낙망하며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목사님께 배운 대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어려움을 통해 내가 무엇을 깨닫고 배울 게 무엇인가’, ‘낙망치 말자’, ‘에벤에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 인도하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자’, ‘내가 걱정할들 머리카락 하나 희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맡기자’라고 마음을 다잡으며 기도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민과 번민들로 가득 찬 제 눈에 들어온 것은 같이 저녁을 먹던 두 아이였습니다. 아이들은 저와 달리 아무 걱정 없이 해맑았습니다.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찬 얼굴로 유치원에서 있었

던 일을 주저리 이야기하는 첫째와 알아듣지 못할 노래를 목에 찢줄을 세우며 신나게 노래하고 덩실덩실 춤추는 둘째, 그 아이들의 웃음과 기쁨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그것들이 전염되어 나를 누르던 근심 걱정이 사라지며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의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잠15:16~17).

행복한 가정은 물질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음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사실 자체로 충분한 행복 조건임을 알았습니다. 또한 가족이 있기에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전진할 힘도 얻을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면 힘들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가정을 꾸리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라 행복을 배가하는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혼하면, 또 자녀가 생기면 경제적으로 조금 더 빠듯할 수 있고, 제약이 많고 육체적으로 더 힘들 수 있

으나 가정에서 얻는 행복은 그에 비할 수 없이 큼니다. 물질이 많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함께 웃음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을 나누는 대화와 사랑을 통해 다소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행복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닙니다. 돈으로 집을 지을 수 있지만, 가정은 세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더욱이 주 안에서 가정을 꾸리는 것, 그것이 최고 행복한 가정이고, 최대의 축복입니다. 자녀에게 믿음을 계승할 수 있으니 그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 노선이 같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목사님도 매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물과 기름이 하나가 될 수 없다고요. 신앙이 같으면 공통분모가 많으니 대화할 거리가 있고, 바라보는 곳이 같기 때문에 늘 하나가 됩니다. 행복한 가정은 믿음과 사랑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인지라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서재환 성도

:: 교단소식 ::

선교란 이런 것이다!



2025년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은 예수중심제자신학원의 영어팀은 5박 6일 일정으로 필리핀 세부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동안 같고 닮은 영어 실력을 가지고 현지인들과 소통하고 해외 예수중심교회를 방문한다니 모두 흥분된 마음으로 선교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필리핀 세부 막탄 공항에 도착하자 우리

를 맞아주는 것은 환영의 플래카드를 들고 있던 세부 예수중심교회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세부 예수중심교회 담임이신 유상진 목사님께서 키운 교회 일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일제히 예수중심교단의 마크가 그려진 JESUS 티셔츠를 입고 있었

고, 만나자마자 이들과 예수중심의 글로벌 연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후 신학생들은 조봉환 회장님이 준비해주신 가비 리조트에 짐을 풀고 당일 기도회를 준비했습니다. 매일 오후 5시, 세부 예수중심교회에서 진행되는 기도회에서 현지 성도들은 마치 노랑진 기도회의 한국 성도들처럼 뜨겁게 기도했고 신

학생들의 기도 소리만큼이나 컸습니다.

이후, 이들과 함께 짝을 이루어 진행된 노방전도는 성령의 기쁨이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를 외치자 사람들은 ‘Good News’ 전도지와 한국에서 준비해 간 선물을 서로 받으려 인산인해로 몰려들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70년대 같은 열악한 곳에 살고 있음에도 그들의 미소는 아름다웠고 신학생들을 저마다 눈물짓게 만들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그들의 까만 손을 잡아줄 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전도이자 “가난 자들의 손을 잡아줄 때 그것이 바로 선교다!”라고 하신 총회장 목사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냈구나.’ 하는 단기 선교의 참 의미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다. 미리 준비한 영어 찬양과 율동, 그리고 유창하지는 않지만 용기 내어본 신학생들의 영어 설교는 현지인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을 준비해 간 우리에게 연신 ‘살라맛뽀(세부어-감사합니다)’를 외치는 그들에게 우리는 절을 해야 할 정도로 감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하는 것임을 깊이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운행하신 하나님과 이번 필리핀 선교를 허락해주셔서 실천신학을 가르쳐주신 총회장 목사님, 그리고 세부예수중심교회 유상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송현해 성도

총에는 공포탄 말고 실탄을 채우자!



예수중심제자신학원의 중국어 팀은 대만으로 선교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중국어 선생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선교여행에 합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로 인해 중국어로 간단한 회화가 가능한 몇몇 인원들과 함께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대만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우리 목적은 중국어를 많이 사용하자는 취지였기에 최대한 중국어 말하기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는 중국어가 많지 않았기에 자동으로 영어가 섞여 나왔습니다.

어느 날 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손님이 우리밖에 없었고, 사장님께 예수님을 알리고자 다가가 중국어로 이야기를 건넸

습니다. “예수님을 아시나요?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십니다...” 사장님에게 더 많은 내용을 전달하고 싶었지만 중국어가 쉽사리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의 얼굴을 보아하니 내용은 전달되었지만 정확한 뜻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아! 중국어를 잘했더라면’ 하는 아쉬운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총회장 목사님은 아는 것이 없으면 할 일도 없고, 실탄 없는 총은 쓸모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만약 중국어가 유창했다면 자신감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의 중국어 실력은 소리만 큰 공포탄과 같았습니다. 실전에서는 큰 효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배우고 익히고 실력을 키워서 실탄이 들어간 총을 사용할 것인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고착된 생각과 편안함이란 블랙홀에 빠져 소리만 큰 공포탄이 든 총을 사용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이번 선교여행을 통해 실력이 없으면 속 빈 강정과 같다는 것을 크게 깨달았습니다. 남은 학기 동안 실전 사용이 가능한 실탄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경업 성도